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10만개의 추억'



광주 문흥동 추억의 소품 가게 '고조선 근대사 전시장'

대표 공동수씨 40년 전국 돌며 오래된 물건 모아
삼학수주·선데이 서울 등...영화 소품 쓰이기도
"응답하라 1988, 나만 아는 틀린 부분이 보여요"



추억의 물품 10만점을 보유한 '고조선 근대사 전시장' 공동수 대표. /최현배기자 choi@

갑자기 마도로스 의상을 구해야할 일이 생겼다. 혹시나 싶어 지역 극단 관계자에게 문의 하니 옛날 의상과 소품이 많은 곳이라며 한 곳을 알려줬다. '고조선 근대사 전시장'(www.gojoseon.kr)이다. 아쉽게도 선일 의상은 구할 수 없었지만 취재 차 들른 이곳은 흥미로운 '추억의 보물창고'였다. 사실, 이곳은 전시장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물건들이 전시된 공간은 아니다. 전시장이 자리한 광주 문흥 IC 인근엔 10여년전부터 10여개의 골동품 가게들이 들어서 있다. 대부분의 가게가 가구 등 골동품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해 '고조선'은 다양한 시대소품과 비품, 의상이 '주종목'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다. 고(故)신기하 의원이 후보자로 나섰던 14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붙어 있고, 촌스러운 꽃무늬 전기밥통, 낡은 라디오, '선데이 서울' 등 각종 잡지까지 흥미로운 물건들이 가득하다.

모두가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 서울로 올라간 공동수(67) 대표는 가구 장식을 만드는 공장에서 '꼬마'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가구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했으며 골동품에 관심을 갖게 됐다. 손때 묻은 낡은 물건을 모아온 게 이래 저래 40년 세월이다. 서울 이태원, 광주역 등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13년전 현재 자리로 옮겨왔다.

공동수가 특히 1960~90년대 추억의 소품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제1회 광주중앙축제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고조선이 보유

하고 있는 물품은 10만점에 달한다. 발품을 팔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구입한 물건들이다. 전국의 골동품 가게들을 돌아다니고 이 분야만 공부하는 전문가들도 찾아다녔다.

1층에는 추억을 자극하는 소품과 비품이 가득하다. 조금은 촌스러운 색동이불과 밉크 담요, 군복, 오래된 종질모, 낡은 아코디언, 직접 사용했던 낡은 노트, 구석구석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소주병과 소주잔만 해도 수십종이 넘는다. TV와 선풍기도 시대별로 구비돼 있다.

2층에는 의상이 보관돼 있다. 각종 교복과 교련복, 나팔바지, 군복, 일본군 의상 등 다채롭다. "예전에는 1960~70년대에 관심이 많았다면 요즘엔 1980~90년대 물품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추억'이 담긴 물품들이거든요. 너무 옛날 소품들에는 별 재미를 못 느끼죠. 가장 비싸게 거래 되는 게 지금은 없어진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죠. 해태 제품과 삼학수주처럼요."

가장 힘들 게 구한 것 중의 하나가 일제 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이발소 의자다. 이발소 장면을 묘사할 경우 적어도 두 대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트를 맞추기가 어렵다.

일제 시대 사용하던 소방기구 세트는 2000만원 쯤 한다. 자석식 전화기는 300만원 정도 나가는 고가인 데다 구하기도 어려워 모조품을 갖춰놓고 있다.

공동 대표는 이곳에 있는 소품을 활용하면 만화방, 자전거포, 문방구 등 60여개 공간을 꾸밀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작은 동네 하나를 만드는 셈이다.

"이발소 하나 만든다고 치면 정말 많은 소품이 들어가요. '바리깡'이나 의자, 거울 등은 기본이고 일명 이발소 그림이나 성냥갑, 요금표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써야하죠. 요즘 인기가 많은 '응답하라 1988' 드라마를 보면 저만 아는, 틀린 부분이 보여요(웃음). 완벽하게 그 시대에 맞는 소품은 정말 구하기 어렵거든요. 작가가 대본에 쓴 대로 소품을 갖추려면 엄청난 공력과 돈이 들 겁니다."

'고조선'은 주로 영화사, 연극 관계자, 축제 행사 참가자 등이 주로 이용한다. 박보영·이종석이 출연한 영화 '피끓는 청춘'을 비롯해 '명동 불루스' 등에 고조선의 소품이 쓰였고 북극영 안 한국미술박물관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도 물건을 납품했다.

공동 대표는 언제나 근현대사박물관을 만들고 싶어 물건을 꼼꼼히 챙겼지만 어렵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계획을 접었다.

"제가 워낙 옛날 물건을 좋아해서 버티는 거지 관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물건들이 정성 없이 쌓여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구경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이사를 가야할 상황인데 그 공간을 작게나마 전시장 형태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각 소품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도 적어두구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개성 만월대서 고려 금속활자 출토

남북공동 발굴...직지보다 오래된 1361년 이전 추정

남북이 지난 6개월간 개성 만월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7차 공동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가 출토됐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지난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 개성 만월대 성과 브리핑'에서 "지난 6~11월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 7000㎡를 발굴조사한 결과 19동의 건물지와 3500여점의 유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난달 14일 만월대 서부건축군 최남단 지역 신봉문터 서쪽 255m 지점에서 출토된 금속활자다.

개성 만월대에서는 1956년 금속활자가 발견된 이후 추가적인 출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2007~2014년 조사에서는 짧은 발굴 기간 등의 한계로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7차 조사에서는 발굴 기간이 6개월로 긴데다 조사인력이 늘어나면서 금속활자 전담팀이 꾸려졌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표토 아래 20~30cm 지점에서 파낸 흙을 채로 쳐 거르는 작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이번 활자를 찾

게 됐다. 출토된 활자는 '女+專'(전일할 전)과 유사하게 보이나 우방 아래쪽 자획이 '方'(모 방)으로 보여 정확한 글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활자의 크기는 가로 1.35cm·세로 1.3cm·높이 0.6cm다. 글자 면을 제외한 몸체의 두께는 0.16cm다.

협의회 최광식 위원장은 "출토된 지역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보면 만월대가 소실된 1361년 이전 것으로 고려활자임은 분명하다"며 "중도가 지나 직지는 불경 인쇄를 위해 사찰에서 만든 활자이지만, 이번에 발굴된 활자는 국가가 주도해 만든 최고 수준의 활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활자는 모두 2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한점씩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속활자 이외에도 여러 명문명기와 용문·봉황문·일월문 등이 새겨진 막새기와, 장식기와로 인 용두·잡상·치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청자는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친 유물이 출토됐다. /연합뉴스

무용가 김미숙씨 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한국무용가 김미숙(46·김미숙하나무용단 단장)씨가 제23회 전국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 대상인 대통령상(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김씨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강선영류 태평무'로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사)한국전통예술발전협의회, 서울 종로구청이 개최하는 전국전통공연예술경연은 판소리, 기악, 무용, 민요 4종목으로 경연이 이루어지며, 각 종목 1위 입상자들 가운데 대통령상을 선정한다.

명인부 무용 부문에 참가한 김씨는 예선 점수 495점을 받아 4종목 중 최고점을 받았으며 결선에서는 총 29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역대 최고 점수(2865점)를



받았다. 종합 무용문화제 제92호 태평무 이수자이자 김미숙하나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김 씨는 '회소'로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한 제16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제 3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무용부문에 장원을 차지했다. 현재 경희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造化 命學 謬 誼 說 全 祝 發 刊

총16편 259장 357절 외 의고15秘傳 (판형 19.6×26.6cm) 907p

命은 天地所賦 人所稟受요 學之爲言은 効라 萬象의 生死法則으로 엮어진 命理秘書가 國內는 물론 世界의 易醫學 研究書이며 특히 韓醫學의 지침서라 할 정도로 病藥說化 收錄했고 배우고 연구하며 알고 시는 시대로 變천함에 無師自通의 書冊이 發行되었다.

- 天命의 품수대로 살아가는 인생 알아야 흥액을 피해간다.
- 時流따라 음양오행을 연구하는 시기 맞추어 명학유익설이 출간되었다.
- 현명한 후손이 나와야 가문 발전한다. 부부상합에서 출생이치 책속에 들어있다.
- 궁합이론과 질액 사주판단법이 자세히 수록되어 세계인이 읽어야 할 교서이다.
- 사상의학이나 오운육기의 어려운 학설보다 더 빨리 질액판단할 수 있는 비고의 서책이다.

1. 음양오행의 법칙이란 만상의 변화법칙이며 만물의 생사법칙의 근본이다.
2. 정신기의 법칙이란 천지도리 만상의 주체 순리의 본시이고 천지신명(三神)의附이다.
3. 천신의 강약에 음은 순응하고 따르는 공간에 기의 유통함이 삼라만상의 생사법칙이다.
4. 천지신명 삼신의 시후와 남녀정신이 맞아야 입태됨을 논리했다(天命精確論)
5. 음양이치를 통달하면 도학의 경지를 넘어 현달한 선사일 것이다.(精神氣三神論)

◎ 本 命學謬 誼 說은 後日 道學者가 評價할 것이다.

- 一. 下元甲子시기 때 맞추어 보태하고 사주 맞추어 개복하기 때문에 이 책이 필요하다.
- 二. 격국을 도표하여 숙견표화했고 十干의 강약과 통변의 이치를 알기쉽게 논리했고 복습고증 1040구절을 말미에 정리한 신비의 책이다.
- 三. 六十甲子를 寅申巳亥柱 二十子午卯酉柱 二十辰戌丑未柱 二十強弱구분 정리했다.
- 四. 甲子~癸亥까지 각주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시기 득실을 표시했다.
- 五. 十干을 十二支月 분석 조건표 과감유준 상격용 희기신 숙견표 정리했다.



- ◎ 天神下降 地神順應 制化之中 多端人生
- ◎ 貧富得失 在於生剋 論命知理 強弱窮通
- ◎ 天地精神 年月日時 中和之勢 富貴無疑

남화정출판사·남화정역리원
編著者 역학강사 新知識人 鉉山 金 鎬 瑤
주문전화 : 062)522-9653 농협계좌 : 302-8645-2254-81
◎造化秘評+命理秘訣+책값壹拾五萬원

※ 萬物은 陰陽五行法度에 依하여 天神에 順應하며 宇宙運行法則대로 天地神明의 精氣를 받아 順利의 天稟대로 自然攝理 변화에 따르기에 人命은 在天이다.